

별 첨

모두 말씀

'26. 10. 30. (금) 10:00

금융위원장
이석원

※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된 자료로 실제 모두 발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업과 은행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금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기업과 금융권이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뜻깊은 결정과 실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미소금융의 의미

미소금융은 조금 특별한 금융입니다.
오롯이 기업과 은행의 기부출연금으로
2009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 기부금이 순환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저신용층을 위한 금융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소금융은
비교적 안정적 연체율을 유지하며
17년을 견고하게 지켜 왔습니다.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 8,642억 원이 마중물이 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4조 8천억원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렇게 42만 번,
누군가의 가게 문이 다시 열렸고
누군가의 생업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오랜 시간, 시장 상인들은
일수에 기대어 장사를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높은 이자를 떼어 가는 관행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미소금융이 들어선 뒤,
그 오랜 일수 관행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등록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며
18%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던 사장님은,
미소금융 200만원 소액대출을 시작으로
사업장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행에서 먼저
사업자금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하십니다.

환난상휼(患難相恤),
가장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정신,
저는 오늘날 이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금융이
미소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이 자리의 여러분이 계십니다.

Ⅲ 미소금융 개편 및 확대

올해 미소금융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소금융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연간 3천억원 수준이던 공급규모를
2028년까지 최대 6천억원으로 늘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금융사별로 각 1천억원씩 출연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이 중 NH는 새로 재단을 설립하시며,
기업재단인 삼성에서도 2천억원을 약속해주셔서
총 8천억원이 모였습니다.

이에 더해 각 재단이 특화상품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쟁과 창의를 더해
현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한은 '자산 형성 지원금'을 운영 중이고
KB도 청년 라이더를, 하나는 직장인을, IBK는 중장년을
우리는 생계형 사업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상품을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올해 제도와 재원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가 진짜 과제입니다.

풀뿌리 금융으로서
미소금융의 정체성을 다시 다져야 합니다.
꼼꼼한 사전 상담에서 시작해, 복지와 연계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어지는 금융이어야 합니다.

일반 금융의 논리와는 다른,
미소금융만의 길입니다.

이런 금융은 비대면으로 표준화해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금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달체계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미소금융의 얼굴이자 심장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을 키우려면
경영진의 꾸준한 관심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미소재단, 그리고 서금원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을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을 함께 정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살피겠습니다.
제도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발언

오늘 협약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이 모든 변화의 든든한 밑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부는 한 번이지만
그 기부가 살리는 삶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내어주신 재원이
앞으로 수많은 이웃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업과 은행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함께
금융이 삶을 되살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